

데뷔 20년 차 맞은 가수 양파

# “감정 전달하는 소리 만들었다”

고등학교 학생으로 데뷔해 올해 20년 차를 맞은 양파(38·이은진)가 2012년 미니앨범 '투게더 (Together)' 이후 약 6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한다.

내년 초에 정규 6집을 내놓는다. 정규로 따지면 2007년 내놓은 허인도우즈 오브 마이 솔 이후 10년 만이다.

신곡 '콜립'은 정규 6집의 신곡이다.

소속사 RBW 대표이기도 한 작곡가 김도훈과 양파가 손을 잡고 만든 브릿지식 발라드다.

8비트의 베이스라인과 기타 리프 스트링 선율이 어우러진 감성곡이다.

특히 내로라하는 가창력을 자랑하는 양파가 화려한 기교 대신 담백해진 목소리를 들려준다.

지난 7일 오후 홍대에서 만난 양파는 “가창이 아닌 감정을 전달하는 소리를 만들어보지라는 마음으로 녹음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싱글 한곡을 발표했지만 거의 정규를 만드는 것처럼 많은 녹음과 공정의 시간을 거쳤다”면서 “감성 위주의 버전으로 택했다”고 전했다.

양파는 지난 1997년 ‘해송이’의 사랑’으로 데뷔와 동시에 노래 잘하는 가수라는 이름을 날렸다.

2018년에는 MBC TV 노래 경연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 시즌3’을 통해 가창력을 새삼 입증했다.

“콜립은 보컬의 지르기 현연이 없다. 들으시는 분들이 일할 때 무한 반복 해서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 양파 하면 ‘가창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를 지양했다.”

노래를 부르는데 기교보다는 감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얘기가 “20대에는 꿈을 이룰 줄 알고 모두 열심히 달려왔다. 근데 30대 후반에는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하지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라고 하면서, 그 분들을 보면서 ‘나도 여기서 똑같이 같이 살고 있어. 그래도 우리 잘해 왔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함께 공감하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

연예인인데다가 ‘집순이’라 지금을 살아가는 또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고 털어놓은 양파



양파는 지난 1997년 ‘해송이’의 사랑’으로 데뷔와 동시에 노래 잘하는 가수라는 이름을 날렸다.

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을 읽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중이다.

6집 발매 전까지 월간 유종신처럼 매달 신곡을 내고, 유종신과 나열 등과 작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고 대중에게 말을 거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는 ‘정말 좋은 곡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쏠려서 듣고 있다.’

“요즘 노래들은 메가 히트가 되도록 금방 사라진다. 예전처럼 전 연령을 아우르면서 길거리에서 오랜 기간 들려지는 노래들이 많이 없다. 좋은 프로듀서들과 진정한 의미의 명곡을 만드는 여정을 떠나볼 생각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인기를 끈 가수로서 ‘원조 아이유’로 통하기도 하는 양파는 정작 전성기 시절이 ‘뿌영’게 기억된다”고 했다. 바쁜 스케줄 탓에 당시에 인기를 실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녀는 어느새 디버러는 이름으로 선배들의 행적을 좇고 기억하는 일에도 열심이다.

지난해 말 뮤지컬 데뷔작인 ‘보디가드’(극작 알렉산더 디넬라리 스톨)·연출 테아 사복)에서 주인공 ‘레이첼 마론’을 맡아 신인 뮤지컬 배우상을 받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힌 그녀다.

이 뮤지컬은 휘트니 휴스턴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동명 영화(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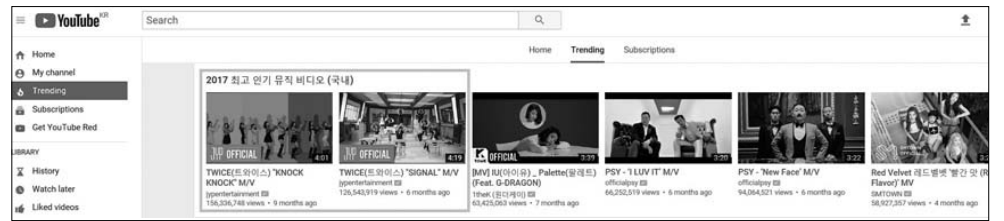
가 바탕인 작품. 16세 오디션 당시 ‘보디가드’ 주제곡인 ‘이이 윌 올 웨이스 러브 유’를 부른 이후 ‘제2의 휘트니 휴스턴’이 되고 싶다고 마음먹은 그녀는 ‘뿌영’의 디버러 길을 가고 있다. 이선희 양희은, 정훈희 등이 그녀가 만나고자 마음 먹은 디버러이다.

SBS TV ‘관타스틱 듀오’에 함께 출연한 이은미와 디버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는 양파는 “선배 디버러의 모습이 다 다르더라”고 했다. 본인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자신의 시간은 거의 줄어들 것이다.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아직 자신이 없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야 노래도 더 잘할 수 있다. 노래 연습을 통해서 노래가 늘기도 하지만, 경험을 많이 쌓는 것으로 인해 노래가 늘기도 한다. 그 경험이 노래에 묻어내니까. 그래서 더 잘 할 이야기한다는 생각을 한다.”

“뜻밖에 양계 공백이 많았는데 누군가가 내게 그러더라. 양파는 항상 주변에 있으니 널 계속 기억할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친숙해질 수 있는 이름인 거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간 속에서 누군가에게 친숙하면서도 새롭고 매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행복 아닌가.”

/뉴시스



## 트와이스 ‘낙낙’ 유튜브 선정 2017 최고 인기 뮤직비디오 1위

대세 걸그룹 ‘트와이스’의 ‘낙 낙 (KNOCK KNOCK)’ 뮤직비디오가 영상 사이트 유튜브 선정 2017 최고 인기 뮤직비디오 국내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다른 곡인 ‘시그널’도 2위에 올랐다.

트와이스는 국내에서 발생한 조회수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이 부문에서 지난해 ‘치어 업’ 뮤직비디오로도 1위

를 차지한 바 있다. 트와이스는 올해에도 유튜브에서 기록행진을 보였다. 지난 5월 ‘TT’ 뮤직비디오로 K팝 여가수 사상 최초로 2억뷰를 돌파했다. 이어 8월에는 ‘치어 업’ 뮤직비디오, 11월에는 ‘우아하게(OOH-AHH하게)’ 뮤직비디오가 2억뷰를 넘어서며 K팝 여가수 최초 2억뷰 뷰를 3개 보유

한 팀이 됐다. 이달 3일에는 공개 33일 23시간 43분만에 ‘라이키’ 뮤직비디오가 1억뷰를 넘어서며 K팝 걸그룹 사상 최단기간 1억뷰 기록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데뷔곡 ‘우아하게’부터 최근 ‘라이키’ 뮤직비디오까지 6연속 1억 뷰 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최승호 MBC 신입 사장, “신동호·배현진, 책임 묻겠다”

최승호(56) MBC 신입 사장은 ‘인적 쇄신’ 작업 일환으로 2012년 파업 이후 전국연료노조 MBC본부와 갈등을 빚어온 신동호·배현진 아나운서를 인사 조치하겠다고 했다.

최 신입 사장은 지난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신동호 아나운서측의 거취와 관련, “회사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징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사장은 “신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과거 아나운서국에서 무려 11명의 MBC 얼굴이었던 아나운서가 떠나가게 만들고, 열 몇 명의 아나운서가 자기 일을 못하고 부당 전보되

록 하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배현진 앵커의 거취에 대해서는 “배 앵커는 지금 앵커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도본부에서 새로운 앵커 체제를 아마 마련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최 사장은 두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MBC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간 일부 인원들에 대한 징계도 예고했다.

그는 “권한 남용이라든지 부패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MBC 재건위원회, 노사 공동의 위원회를 통해 그 문제를 다루고 조사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통산 5번째 발롱도르 수상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레알 마드리드)가 통산 5번째로 발롱도르(Ballon d'or)를 수상했다. 리오넬 메시(30·FC바르셀로나)와 나란히 5회 수상이다.

호날두는 8월(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에서 열린 제62회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5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2008년과 2013년, 2014년, 2016년에 수상했다.

2년 연속이다. 호날두는 5번째 수상으로 종전 최다 수상자였던 메시(5회)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메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에 이어 2015년 발롱도르를 들었다.

호날두는 2016~2017시즌 유럽축구



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를 정상으로 이끌었다.

Uefa 챔피언스리그에선 12골을 터뜨려 사상 처음으로 5년 연속 득점왕에 오르기로 했다. 11골의 메시를 따돌렸다.

호날두는 수상소감에서 “매우 행복하다. 나의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환상적인 순간이다”며 “오래 기다렸다. 정말 엄청난 한 해였다. 레알 마드리드와 포르투갈의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1956년 창설된 발롱도르는 원래 유럽 국가의 클럽에서 활약하는 유럽 국적 선수들에게만 했지만 1995년부터 국적 제한을 폐지했고, 2007년부터 후보를 전 세계로 확대했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